

멀티버시티時代의 대학교수

劉 載 天

(西江大 新聞放送學科)

지난 '80년의 교육개혁 이후 우리나라의 종합 대학도 유니버시티時代에서 멀티버시티(Multi-versity)時代로 접어든 느낌이 짙다. 대학에 따라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학마다 학생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웬만한 큰 종합대학은 1만 5천 명이 넘는 재학생을 수용하게 되었다. 물론 학생수의 증가만 가지고 우리나라 대학이 멀티버시티화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겠으나 그런 조짐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학생수의 증가에 따라 완만하나마 교수의 수도 늘어났으며, 강의실과 도서관 등의 시설들이 많이 들어섰다. 뿐만 아니라 대학마다 각종 연구소가 설립되고 학교의 재정은 크게 팽창했으며, 대학행정은 더욱 관료화되어 학원기술 관료가 대학을 지배하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대학은 더욱 더 '학자들의 공화국'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대학을 하나의 가족공동체처럼 생각하고 있다. 예컨대 '서강가족'이나 '경희가족'이라 부르고는 있으나 과거에 비해 대학공동체가 지니고 있던 '일체감', '심성적 통일', '자발성', '전체성'과 같은 속성들이 크게 약화되기에 이르렀다. 한 대학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집단들이 형성되어 저마다 다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인문학자들의 공동체'나 '자연과학

자들의 공동체' 등으로 분리되는가 하면 각종 연구소 중심의 작은 공동체들로 쪼개지기도 한다. 그에 따라 대학의 문화도 다양한 하위문화로 분화되기에 이르렀다. 시대의 상황은 교수와 학생 사이를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생집단도 더 이상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대학사회도 '소외', '심성적 단절', '비참여', '분절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대학의 주인인 교수들의 속성에도 큰 변모를 초래하게 되었다. 지난날의 가족 같은 동료 사이의 '일체감'은 교수공동체의 분해로 사라지고 말았다. 공동의 관심사 대신 개별 관심사를 중심으로 하위집단들이 형성됨에 따라 '전체성'은 '개별성'으로 퇴치되었다. 심화되는 대학의 관료제는 '자발성'을 '비참여'로 자연스럽게 바꾸어 놓았다. 학자에서 학원기술 관료로 변신한 동료들에 의해 교수들은 제도로 부터 '소외'당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교수라는 직업은 이제 한낱 봉급 생활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교수들에게 부과되는 짐은 무거워만지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강의당 학생수는 교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 지 오래다. 직업의 사명에 비추어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마련인 교수들이 자기 갈등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불가능한 요구가 되어 버린 지 오랜 학생지도 문제도 이 나라의 대학교수만이 짊어지는 명예로 상존하고 있다. 대학교수들의 고유 권한인 교수와 연구조차 관료들의 감사 대상이 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대학교수들의 봉사 요구도 날로 증대되는 경향이다. 오늘의 대학은 교수와 연구 및 사회봉사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학문 분야에 따라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교수들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실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내에서 교수와 연구의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교수들에게 사회봉사만 요구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교수는 소모품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교수들의 연구 부담도 늘어만 간다. 모든 학문 분야에서 지적 탐구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으며, 쏟아지는 연구 성과는 홍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교수들은 최소한 자기 전공 분야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도 지난날에 비해 몇 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맨손으로 될 일이 아니다. 충분한 지원이 뒤따라야 될 일인 것이다.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실험실습 시설의 확보 및 연구 인원의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들을 가르칠 교실만 마련된 상태로 대학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이러한 대학의 여건은 교수들에게 연구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학문의 탁월성 추구는 그래서 항상 허공에 대고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게 되고 만다.

대학이 멀티버시티化됨에 따라 대학공동체가

지녔던 여러 가지 속성이 약화되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귀결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공동체 해체에 따른 '소외', '심리적 단절', '비참여', '분절화' 등은 다른 방식으로 극복되어야만 할 과제인 것이다. 대학 경영자가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더 많은 교수들을 채용하고, 학문의 탁월성을 위해 교수들의 연구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그와 같은 심리적 황폐는 극복되리라 믿는다. 이와 함께 대학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제도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학원기술 관료에 의해 독선적으로 학사행정의 모든 부문을 운영한다면 교수들의 '소외'와 그에 따른 '비참여'는 해결될 길이 요원한 것이다. 예컨대 총장 선임에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자기 대학 학장은 교수들에 의해 추대될 수 있어야 옳다. 공동체가 지닌 속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멀티버시티가 대학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일체감'을 유지하려던 대학의 인사와 학사의 민주화가 유일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교수와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두 대학 내부의 문제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고 여긴다. 사회의 문제나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못지 않게 대학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관심을 의지로 키워 실천 프로그램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오늘의 우리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학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는 그야말로 봉급 생활자의 자리로 전락할 것임에 틀림없다. 멀티버시티時代의 대학교수의 위기는 '대학으로부터의 도피'에 있지 않을까 싶다. *